안창수 그림

3 - AUG - 9
Copy ____ 1960

활살

№ 1 (62) 시사만화잡지 1956. 1.

1956년을 맞으며

우리는 빛나는 전망과 창조적 정열을 가지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 들어선다. 지난 해에 우리는 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또는 새로 건설했다. 농촌들도 전쟁의 상처들을 가시며 식량과 공예 작물 증산에 일어섰고 우리 나라 농업과 농민 생활에 새로운 전변으로 되는 협동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의 인민 경제 계획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던 좌 우경적 편향을 시정하고 우리 실정에 확고히 립각한 계획이 시달되였다.

조선 인민의 단결은 한층 더 튼튼해 간다. 내부로부터 우리를 와해시키려던 박헌영 도당 등의 종파 책동이 폭로되였으며 박 헌영 리 승엽을 비롯한 미제의 고용 간첩들도 폭로 처단되였다. 관료주의자 탐오 분자 등 우리 사업을 내부로부터 좀먹던 자들과 경향들도 폭로되여 인민들로부터 규탄을 받았으며 전체 인민은 앙양된 기세로 반 관료 반 탐오 투쟁에 궐기하고 있다.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우방 국가 인민들로부터 오는 손길은 우리를 물심량면으로 계속 원조하고 있으며 영웅적 조선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은 초소에서 우리의 평화적 건설을 철옹성 같이 보위하고 있다.

통일되고 단결된 력량으로써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제 3차 전당 대회를 맞이하면서 1956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계획을 빛나게 초과 실행할 것을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 앞에 맹서한다. 조선 인민의 한결 같은 념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을 맹서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이 더욱 공고화 되고 강력해 지며 전세계 평화 애호 력량이 미증유로 강대해 지는 환경에서 새 해를 맞이한다. 세계 제패를 꿈꾸는 전쟁 방화자들이 세계 인민들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고 그들 자체의 내부 모순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1956년을 맞이한다.

서방 식민주의자들이 식민지 예속 인민들 우에 군림하면서 제멋대로 주인 행세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식민지 략탈 전쟁의 근원지였던 지역들에서도 평화 력량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세계 인민들 앞에 망신과 실패를 거듭할 뿐이다.

유·엔 총회 제 10차 회의에서는 신성원 가입 문제와 안보 리사회 비상임국 선거에서 미국이 다년간 조종해 온 거수기가 미제의 의사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 사실은 이 『기계』의 수명이 인제는 다 되여 간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힘의 정책』으로 위협하며 거수기로 국제 문제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제네바의 정신』으로 알려진 호상 신뢰와 리해로써 그리고 회담의 방법으로 국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세계 인민들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다.

이 목소리는 전체 조선 인민의 목소리와 완전히 합치된다.

리 승만 도당이 『북진』 라팔에 발광하면 할 수록 전체 조선 인민으로부터 멸시와 증오를 받고 있다. 이 라팔에 반 맞추는 군사비의 증대는 자승 자박으로 그들 자신을 재정난과 경제적 곤경과 정치적 파국의 헤여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더욱 깊이 몰아 넣고 있다.

우리들 앞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다. 3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가능성을 실현하며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가일층 강화하며 3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고상한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사상으로 더욱 무장될 것이 요구된다. 계급적 각성과 각자의 사업에서의 주인다운 태도와 깊은 연구와 창발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는 또한 우리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 잔재와의 비타협적 투쟁이 요구된다. 온갖 종파주의 분자들과 경향들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이 요구된다. 관료주의 탐오 행위 자만성 아첨 및 비속성의 표현들과 아직도 우리 사업에 남아 있는 교조주의 형식주의 등을 제때에 폭로 시정해야 한다. 미제와 그 졸도들의 흉책을 높은 경각성으로 주시하며 그들이 퍼뜨리고 있는 미국식 『문화』의 사상적 허무성과 퇴폐성을 예리하게 폭로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에서도 지난 해들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

우리의 전진을 능히 가로막을 자는 없다.

우리는 투쟁 속에서 장성 강화된다!

미제가 파견한 간첩 도당들을

흙데미를 밀어 내듯이

불살러 버리듯이

1956년 새 해의 결의

최한진 그림

다지는 결의에…

빛나는 전망!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성의 해인 1956년을 맞이한 공화국의 전체 로동자 농민들은 우리 나라의 빛나는 전망에 더욱 고무되면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보다 튼튼한 축성을 위하여 로농 동맹의 기치도 높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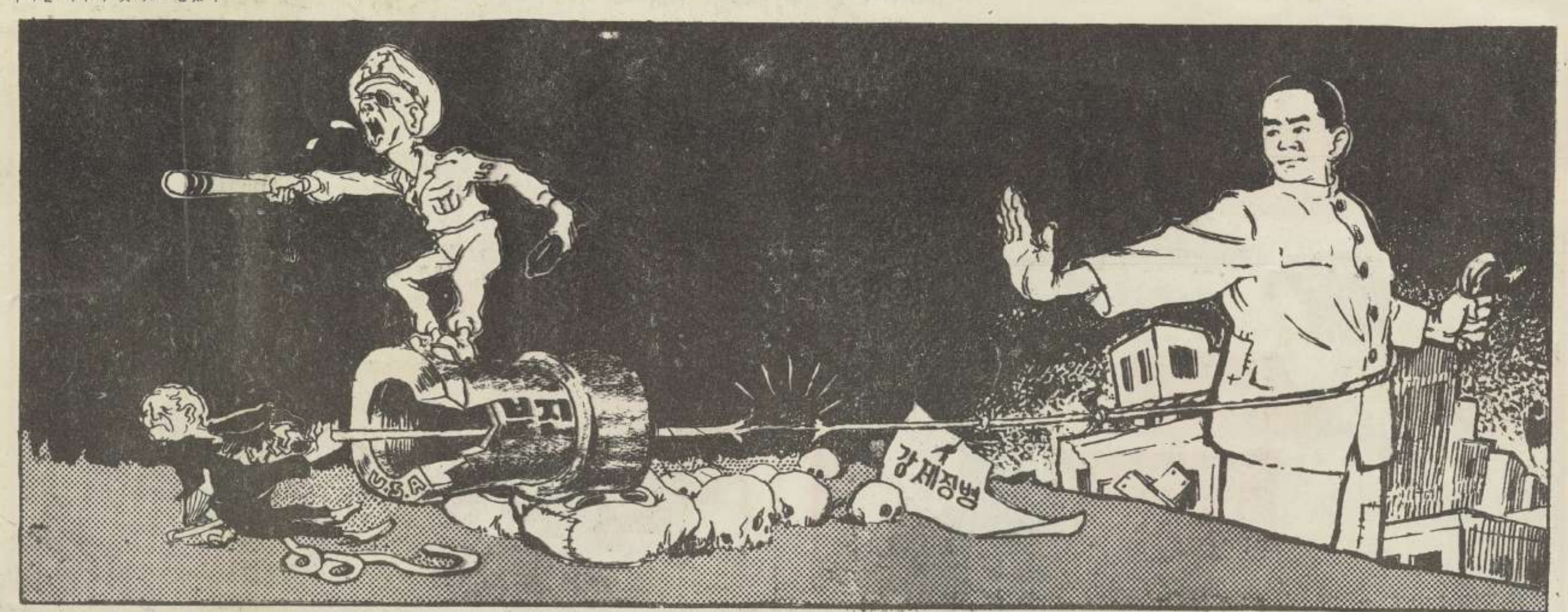
송용남 그림

벌레를 잡아 내듯이

쓰레기를 쓸어 내듯이

간첩 암해 분자 몰아
내고 공고한 단결로!

미제의 사촉 하에 리 승만 도당들은 지난 해에도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을『북진 전쟁』을 위한 대포밥으로 긁어 모으기에 가진 발악을 다 했으나 청년 학생들의 치렬한 징병 반대 투쟁에 봉착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리 승만! 새 해 첫 걸음도 못떼면 어찌하노…
—아이쿠 지금 결사적으로 북진 준비 중입니다

홍종호 그림

미제의 고민상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왜
이렇게도 인기가 없느냐?

박승히 그림

일찌기 서울에 있는 미국 상업 회의소 회두 폭스는『현재의 조건 하에서 남한의 복구는 절대로 불가능하며』『미국은 잃어버린 그 체면의 마지막 흔적조차를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조선 인민은 유•엔 한국 재건 기구를 경멸하고 있다』고 자인하였다

리승만의 첫「국무회의」

1955년 12월 24일—『크리스마스 이브』를 밤새껏 즐긴 리 승만은 그 이튿날 아침이 되여서야 비로소 혼곤히 잠이 들었다。누에 번디 같이 오골쪼골한 로구가 척 늘어지도록 긴 잠을 자는 동안에 리 승만은 단 꿈을 꾸었다。

× × ×

꿈 속에서—리 승만은 평상시처럼『국무 회의』를 열기 위하여 각 『장관』들을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였다。크리스마스를 맞으면 새 해나 다름 없이 생각하는 리 승만인지라 그는 새 해에 해야 할 『국사』를 의논하기 위하여서였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장관』들이 모이지를 않아서 잔뜩 짜증이 난 리 승만이 앞에 난데 없는 유령 셋이 나타났다。

『아니?! 나의 가장 귀중한 친우들이… 이게 웬 일이요 마침 국무 회의를 열자고 하든차에 잘들 왔제다』리 승만이가 반색하여 권하는 대로 유령들은 그를 향하여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하느님의 축복을』하고 저마끔 十자를 그리였다。

『나는 새 해에도 당신들을 위하여 한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있습네다』리 승만이가 흐뭇한 낯색으로 답례를 하는데 람루한 옷차림에 뼈만 앙상한 량손을 모두어 깡통을 쥐고 앉아 있던 유령이 핼쑥하게 여윈 핏기 없는 얼굴에 랭소를 띄우고서 먼저 말을 고넨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 많은 실업자와 리농한 농민과 자살자까지를 낳게 해 준데 대하여 영예를 드립니다 새 해에도 더 많은 념려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오— 나의 희망인 기아여! 승만은 아주 행복하게 생각합네다』리 승만의 감격에 넘친 대답이 끝나자 파랗고 허줄한 옷차림에 부어터진 손에는 쇠사슬을 쥐고서 앉아 있던 감옥의 유령이 검푸르게 멍이 든 얼굴에 고소를 지으면서 말을 뗀다。

『나 역시 그 훌륭한 미국식 고문 기구를 갖추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징역자와 사형자를 보내 준 당신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의견으로서는 체포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키 어려운게 있기는 하오만…』

『에헴! 나는 감옥의 공적을 높이 찬양합네다 당신 덕분에 많은 위험을 면하게 된 승만은 기쁜 마음으로 그 제의를 접수하여 더 많은 감옥을 신설하겠습네다』간들어지게 아양을 떨면서 리 승만이 치하의 말을 떠벌리는데…

『그러나 나는 불만하오』하고 전쟁의 유령이 불쑥 말을 가로 채다。병신된 바른 팔을 붕대로 감아 목에 건 전쟁의 유령은 찌글어진 입에 거품을 물고서 불상 사납게 부풀은 두 눈을 히번뜩거리며 말을 계속한다。

『당신은 강제 징병을 하여 사단을 배로 늘쿠고 또 미국이 준 무기들로 장비를 해 놓고서도 공연히 북진 라팔만 불고 있을 뿐이니 어찌된 셈판이요』

『아이고… 나도 미국 어른네들의 지시 말씀대로 북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벼라별 짓을 다 해 왔습네다 그런데 그 공산군의 위력이 너무 강대한 데다가 또 국민들이 몽땅 염전병에 걸려서 말을 들어 주지 않으니 그만 오장이 뒤집힐 지경입네다 그러나 승만의 결심은 한사코 평화를 반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의 첫 국무 회의에서 거듭 언명합네다』리 승만이가 갑자기 훌적거리면서 목멘 소리를 하는 통에 약간 무색해 진 전쟁의 유령은

『당신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당신이 하느님의 축복을 많이 받도록 협력할 것입니다』하고 넌즛이 위로의 말을 한다。이 말에 감동한 리 승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큼직히 十자를 그리면서 중얼거린다。

『오— 나의 귀중한 친우들이여 감사합네다 승만이가 천당에 가고 못가는 것은 오직 당신들에게 달려 있습네다』

『념려마시오 나는 지체 없이 당신을 천당으로 안내할 것입니다』기아의 유령이 선듯 일어나더니 리 승만의 손목을 잡아 이끌면서 말한다。

『나도 힘껏 당신을 호위할 것입니다』감옥의 유령이 리 승만의 뒤로가서 등을 밀며 말하는데…

『물론 나도 당신을 위하여 어김 없이 길을 터 드리지요 자 가십시다』하고 장담을 하면서 전쟁의 유령이 앞장을 서서는 문을 열어 재낀다。

그러자 리 승만의 앞에는 갑자기 안개가 자욱히 어린 어딘지 분간할 수 없는 곳이 되였다。 죽은듯한 정막 속에서 간이 깨알만 해진 리 승만이가 숨을 죽이고 두 눈을 두리번거리며 앞을 살펴 보는데 산 같이 쌓여져 있는 해골 데미가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보시오 저게 당신을 위하여 하느님이 차려 놓은 진수 성찬입니다』사지를 휘들휘들 떨고 있는 리 승만이를 이끌면서 기아의 유령이 말을 하자…

『새 해에 주는 하느님의 축복이요』하고 감옥과 전쟁의 유령들이 똑 같은 말을 외우고는 리 승만이를 밀고 당기면서 재촉한다。

× × ×

『오호홍…』리 승만이가 자다 말고 벼란간에 당나귀 울음 같은 소리를 지르는 통에 문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호위병이 깜작 놀래여 방 안으로 뛰여 들어 왔다。

『각하! 각하!』

『오— 애리스 애리스!』리 승만이는 호위병을 붓들고서 허우적거리며 간이 타게 첩을 찾는다。

『애리스 국모님께선 지금 아랫 층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어 기도를? 이놈아 내가 첫번 국무 회의 끝에 천당으로 가다가 락상을 했으니 애리스를 어서 오라고 해라… 그런데 얘 저 웬 통곡 소리냐?』

『빗 애리스 국모님의 찬송가 소립니다』

『찬송가? 아이구 으흐흥… 어쩌면 꼭 장송곡 같으냐 오— 아… 멘』리 승만이가 허공에 대고 련거퍼 十자를 그리면서 중얼거리는 데 경무대 뒷산에선 까마귀 울음 소리만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김 동 희

리 승만의 감각

미각—미국엔 더욱 아첨하고

시각—"북진〃 발광에 대포밥만 찾아 다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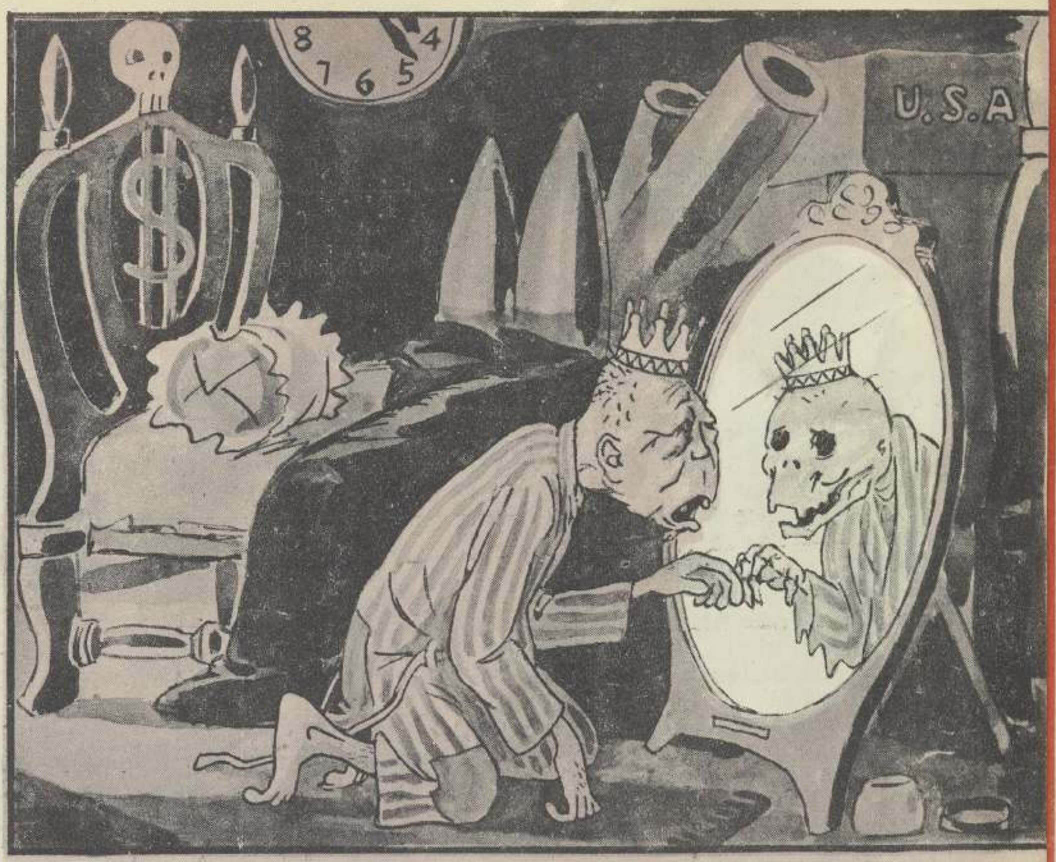
청각—인민의 목소리에는 테로로 대답하고

촉각—닥치는 대로 긁어 들이고

후각—화약 냄새엔 꼬리가 살랑살랑

육감—남조선 인민들의 항의와 그 지배층 내부에서까지의 심한 멸시와 증오엔 울개미만 느껴지네

박승히 그림



서울에 밤이드니 먼디 개 짖어 온다
창문을 열고 보니 하늘이 차고 달이로다
달보고 짖는 개야 내 심정 네 모르랴

『대통령』삼선일랑 한사코 하쟀더니
누구를 믿을소냐 그 누가 나를 믿을소냐
너라도 지지해라 너이자 나아니냐

송용남 그림

유일한 담보

김 덕 삼

벽에 걸린 세계 지도 앞에서 리 승만은 장속의 원숭이와도 같이 왔다 갔다 하고만 있었다。

『곤난한걸 곤난해…』

각『장관』들이 리 승만의 방으로 들어섰을 때는 바로 이러한 장면이였다。그들의 인사는 건성으로 받은 리 승만은 그냥 장속의 원숭이 시늉을 계속하면서『곤난해…』하고 한탄을 거듭했다。『장관』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너는 알겠느냐는 얼굴들이다。그 중에서『재무부 장관』이 제일 먼저 알은체 했다。

『곤난하다 뿐인가요 우리 형편에 이런 굉장한 군사비를 충당하기란 여간만 곤난한 일이 아닌데다 우선 예산 적자를 어떻게 메꿀 수 있을는지 그것이 참 곤난한 일이지요 백방으로 대책을 세웠지만 우리들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백성들이 춤을 춰 주지 않는걸…』

이때 리 승만이 손 짓으로 입을 닥치도록 분부했기 때문에 말을 끝맺지 못했다。뒤를 이여 각『장관』들이 앞을 다투어 리 승만이 곤난하다 한 것이 무언지를 맞치려고 저마끔 소견을 말하기 시작했다。그래서 당장 급한 식량난, 주택난, 전기난, 연료난, 취직난, 학생들의 입학난, 학비난, 환자들의 치료난 등등 곱아내리니 남조선 천지와 남조선『정부』에 곤난하지 않은 일이 없어 하는 중에『내무부 장관』이 에헴하고 잔 기침을 하며 반렬에서 나섰다。

『무엇 무엇 해도 백성들의 사상 동태가 제일 곤난하지요「정부」에서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안듣게 됐구 둘만 모여 앉아도 불평 불만이여서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형편인데다…』

『그만 두라구 그만 둬…』

리 승만은 자기 심사를 누가 알아 맞치려는가 하여 잠시 들고만 있었으나 끝내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좌중이 조용해지자 여지껏 입을 다물고 천정만 쳐다보는『부흥부 장관』에게 물었다。

『부흥부 장관』은 곤난한 일이 없는가?』

『우리「부흥부」야 곤난한 일이 있을리가 없지 않습니까』하고 대답하는『부흥부 장관』은 역시 태연하다。부흥 사업을 하려기에 곤난도 있을 법하지 애초부터 부흥은 바라지도 않는 처지에 무슨 곤난이 있겠느냐는 대답일 것이다。

이 대답에 리 승만은 잠시 눈웃음을 지었다가 위세를 돋우었다。

『곤난에 대해 떠벌리는 녀희들이야 말로 참 곤난한 미물들이다 만사에 되여가는 일이 없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가는 데 녀희들은 겁을 먹는 모양이로구나? 언제는 백성들이 우리를 믿고 우리를 지지할 줄 알았느냐? 우리「정부」를 만들어 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올려 앉혀 준게 조선 백성들인 줄 알았느냐? 우리가 바랄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는 오직 미국 어른네들의 지지 뿐이야』

『지당한 말씀입니다』『장관』들의 합창이다。

『고양이는 쥐를 잡고』리 승만은 계속했다。『닭은 울어 시간을 알리고 개는 짖어 집을 보아야 주인 마음에 드는 법이거늘 하물며 미국의 신임을 어찌 가만히 앉아서 바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할 일은 미국이 아세아를 지배하도록 길을 열어 놓는데 있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선 우선 조선에서 새 전쟁을 준비하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해야 되는 법이거든』

『이를 말씀입니까!』또다시『장관』들의 합창이다。

『그러니 녀희놈들은 모두 미련한 놈들이란 말이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축출 운동」만 하더래도 그게 무슨 망신이냐 종래부터 해오던 강제 공갈 뿐 아니라 음식과 금전으로 매수까지 하면서도 겨우 그만큼 밖에 동원하지 못한단 말이냐? 박수 무당네 장사에도 그보다는 호상군이 많더구나! 그러다가 결국 워싱톤으로부터 중지 명령까지 내리고 보니 그게 무슨 망신이냐? 내나 녀희들이야 새삼스레 체모를 갖추고 위신을 찾은들 무엇하랴마는 미국 어른네들께 그 무슨 망신을 가져다 주었난 말이다 웃사람 섬기는 사람의 처신이 그래서는 못쓴다』

그리고 나서 리 승만은 지팽이를 들어 지도 우를 차례로 가리켜 가며 계속했다。

『여기를 보아라!「북한」에서는 매일 같이 평화적 통일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여기 쏘련은 세계 평화 운동의 선창자지 6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또한 평화를 주장하지 월남이 그렇구 게다가 인도까지—네루 수상 혼자만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 쏘련 국가 지도자들의 인도 방문 때 보니까 3억 7천만 인도 사람이 모두 평화를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비르마도 그렇고 아프카니스탄도 그렇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일본 백성들까지 평화를 원하고 나서는 형편이라 하또야마 수상조차 이를 무시하기가 차츰 곤난해져서… 그러니 우리 주위는 지금 평화 속에 에워 싸여 가고 있구나! 평화에 의한 포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러다가는 우리는 짖지 못하는 개요 짠맛 잃은 소금이 되고 말겠구나! 지금 우리 처지가 평화라는 무변 대해로 둘려 있는 무인 고도와 같아 졌으니 어찌 우리 직책을 다 했다 할 수 있을고?』

리 승만은 한숨을 지으며 계속했다。

『조금 전에 미국 대사한테서 전화가 걸려 왔는데 평화의 목소리가 아세아 전체를 뒤덮고 넘치는만큼 전쟁 준비를 맹렬히 하며 전쟁 분위기를 떠들썩하도록 한번 더 소동을 일으키라는 지시다 그러니「북진 태세」다「림전 태세」다「결전 태세」다「북진 태세의 강화」다 하고 떠들어 본댓자 기왕에 하두 많이 지껴려온 말들이라 신통한 효과는 있을듯 싶지 않고… 그래서 곤난하단 말이다』

이렇게 떠벌이고 있을 때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수화기를 든 리 승만의 목소리는 대번에 쥐 잡아 먹은 고양이 소리로 변하더니 전화가 끝나자 갑자기 활기를 띄였다。

『역시 미국 어른네들은 생각하는게 달라! 인젠 난관이 돌파됐어! 신년 벽두에 곧 예비병을 소집해서 대대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북진 태세의 강화」를 목청껏 떠들라는거야 어때? 하느님 같이 전지 전능한 분네야!』

각『장관』들이 이에 따라 모두 치하한 것은 물론이다。리 승만은 더욱 흥분하여 다시 방안을 거닐며 지꺼렸다。

『예비병 소집령장을 돌으고는 이를 기피하는 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해야지 그리고 병역 기피자 수색도 이와 동시에 더 대규모로 하고… 그래서 신년 벽두부터「남한」의 어느 백성 집에서나를 물론하고 전쟁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지! 솥에 넣고 콩을 볶듯이 전쟁 분위기로써 백성들의 엉둥이를 지져 놓으란 말이다 모두 껑충 껑충 뛰도록 볶아대라! 그렇지 전쟁! 긴장 상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물 밖에 난 고기다!』

열에 들뜬 리 승만은 찬 공기를 쏘일 생각이 났든지 창으로 가서 창문을 열었다。그때 옆에 서 있던『국방 장관』이 뭐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의 허리를 껴안았다。그러자 리 승만은 대경 실색하여『사람 살려라! 이놈이 날 배반했구나 사람 살려라』하고 비명을 지른다。다른『장관』들이 모여 들자『국방 장관』은 리 승만을 놓았다。

『이놈 이놈 녀까지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역적놈 같으니…』

이렇게 숨이 턱에 차서 허덕이며 중얼거리는 리 승만의 얼굴은 백지 같았다。

『그런게 아닙니다』

『발명 말라! 아니면 무슨 것인고?』

『창문을 여실 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대통령 각하」도 존경하시고 저도 존경하여 마지 않는 전 미국 국방 장관 포레스탈 장군의 최후 장면입니다 포레스탈 장군이 전쟁열로 발광하여 창에서 뛰여내려 즉사하신걸 생각하자 무엄히도 허리를 잡아 놀라시게 했습니다』

그제야 안심한 리 승만의 얼굴엔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잠시 후에 그는 다짐하듯이 자신성 있게 말했다。

『그건 념려 말아라! 나도 간혹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는 바는 아니다마는 포레스탈 장군이 뛰여 내린 방은 팔층이 아니냐? 여기는 팔층이 아니니까 안심해도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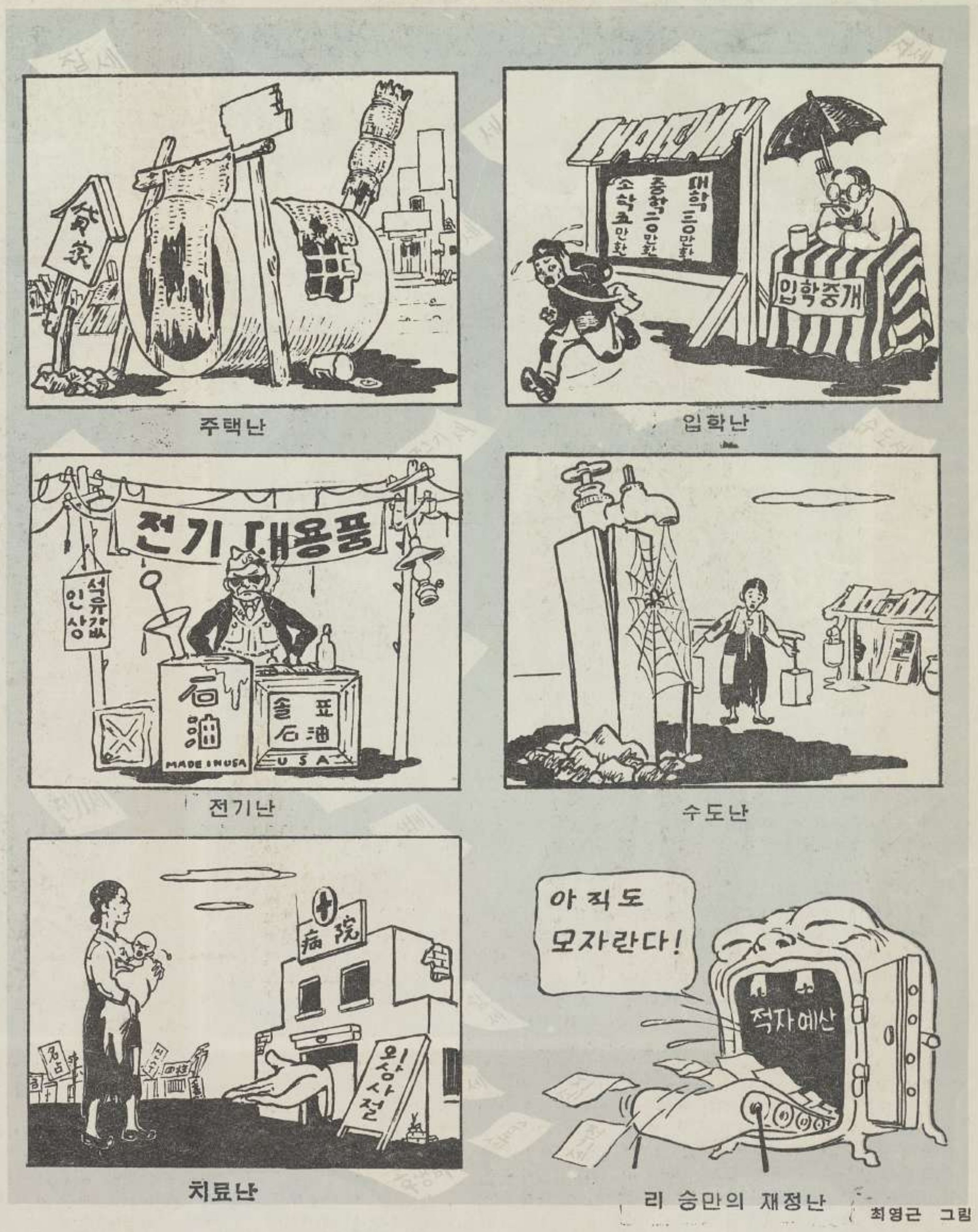
두 전쟁 미치광이—포레스탈과 리 승만의 최후가 서로 같을 수 없다는 유일한 담보는 경무대가 팔층집이 아니라는 거기에 있을 뿐。

아이젠하워는 소위『일반 교서』에서 침략적 폭력을 계속 유지하며『동맹국』들의 군사력은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이만하면 꽤 짖을 수 있겠지

박승히 그림

엎친데 덮친 곤난



주택난 / 입학난 / 전기난 / 수도난 / 치료난 / 리 승만의 재정난

최영근 그림

쪽집개 소식

『련습 목표물』

지난 해 12월 19일 남조선의 경북 고령군 다산면 호천동에 거주하는 박 인하 농민의 처 리 초금 녀성(44세)은 자기 집 앞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습격해 온 비행기의 기총 사격에 옆구리가 관통되여 죽었다。이 참상을 목격한 부근 농민들의 증언에 의하여 결국 사건의 진상이 판명되였다。

사실은 미군 교관들의 지도하에『한국』공군 무수탕 전투기 부대들이 대구 기지를 떠나 폭탄 투하며 기관포 사격 훈련을 하던 중에 그 녀성이『사격 련습 목표물』로 되여 희생된 것이라고 한다。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지난 해 일년만 하드라도 미 공군과『한국』공군들의 비행기에 의하여 29명의 인민들이 희생되였다。또한 전쟁 전에도 동해안의 울릉도 부근 독도에서 미 공군의『폭격련습 목표물』로서 고기 잡이 하던 수많은 어민들이 무참하게 희생된 사건이 있었던바 괴뢰군들은 이런 면에서도 미군의『모범』을 따르고 있다。그래서 남조선 인민들은 비행기의 폭음 소리만 들어도 놈들의『련습 목표물』이될까봐 불안해 하면서 증오에 불타는 눈초리로 대공 감시를 한다고…

『자유 응모제』

남조선『정부』는 지난 해에도 온갖 방법을 다하여 미군의 군사기지 확장을 위한『로무 사단』충당에 광분하였다。그러나 아무리 강제 징모를 해 보아도『로무 사단』에 이끌려 가기를 원치 않는 남조선 인민들의 동향에 그들은 실색한 나머지 새로운 술책을 썼다。즉『우대』를 선전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요 도시들에서 허울 좋은『로무자의 자유 응모제』를 지난 년말까지 수차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그런데 안동에서의 실례만 보아도 150명 모집에 응모자 7명이란 성적으로 끝나고 말았다。남조선에는 200여만명의 완전 실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우대』한다는『로무자의 자유 응모제』에 실업 로동자들이 코웃음으로 대한 원인이 어데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합동 통신』은『의정부 청량리 등지의 일선 미군 부대에서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치욕적 대우와 먹을 수 없는 악식만을 주면서 혹사하기 때문에 로무자들의 사망자 수가 적지 않으며 따라서 도주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그러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이 자기 가족들을 저바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생죽음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자유 응모제』란 미끼에 걸려 들지 않을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닌가…

파란된『계획』

남조선『정부』에서는 1955년도 역시 농민들로부터의『추곡 매상 계획』이 부진 상태에 빠지자 언제나 하는 식으로 벼락별 형태의『독려반』을 발동시켜 위협 공갈 나아가서는 밑이 들여다 보이는 회유 전술까지를 쓰면서 량곡 수탈에 광분하고 있다。그런데 바로 이런 판에 지난 12월 5일 남조선의『경제 통신』은『농림부에서는 2년 전에 농민들에게 매곡 보상용으로 주게 된 비료를 구매카트만 지급하고서 현물은 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 가마니당 4백환이라는 쌀 몇데 값도 못되는 현금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한편 같은 12월 5일『합동 통신』은『금년도 추곡 매상 계획을 겨우 0.3%밖에 못했다』고 보도하였다。그러니 이 엄연한 숫자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이 총칼로 위협하며 최악적인 감언 리설로 기만하여 감행해 온 량곡 강탈 정책에 대한 남조선 농민들의 반대 투쟁이 치렬해 지고 있음을 확증하는 숫자가 아니고 무엇이랴…

봉변당한 로인

최근에 남조선의 광주시에서 거리를 지나가던 로인 하나가 헌병과 경찰로 되는 한 패거리에게 수염을 잡아 뽑히운 사건이 발생하였다。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해명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남조선의『합동 통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남조선의 청년 학생들 중에는 병역 반대를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병역 기피를 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지난 해의 병역 적령자 등록시의 실례 만보드라도 자기 년령을『인상』하거나『인하』함으로서 병역 적령을 허위 등록한 것 쯤은 허다하였다。한편 더 기괴한 현상은 수년간을 박 애란이란 녀성 이름으로 완전 녀장을 하여 병역 기피를 하다가 발각된 청년도 있으며 몇해 동안을 불구자 행세를 하거나 또는 외국 선박에 결사적으로 잠입하여 해외로 도주함으로서 병역을 기피한 청년들이 수 없이 많은 현상이다』라고…

그래서 남조선의 경찰 헌병 및 미군까지가『녀장한 병역 기피자』를 단속한다는 구실로 젊은 녀성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만행을 하는가 하면 이미『국군』에 끌려갔다가 부상 당하여 나온『상이 군인』까지도『가짜 불구자』로 알고서 폭행을 가하면서 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지어는 년령『인상』자로 보고서 늙은 사람의 수염까지 잡고 뽑아보는 무례한『단속 바람』이 불고 있다니 불의의 봉변을 당한 로인이『개놈들 때미 수염도 맘 놓고 기를 수 없당께로』하고 분개함도 당연한 일…

『크리스마스 선물』

남조선에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 활동을 제압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언제나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계엄 상태인 통행 금지 시간으로 되여 있다。한편 이 통행 금지 시간에 미군과 괴뢰군 및 경찰들에게 있어선 더욱 악랄한 반인민적 만행을 감행하는 시간으로도 된다。그러나 일년 열두달 삼백 육십 오일 중에서 단 하루만은 인민들에게도 통행 금지 시간이 해제되는 날이 있다。물론 어느 곳에서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미국 신사들』이 욱실거리는 곳에서만 그러하다。그것도 그 어떤 민족적 명절이나 기념일도 아닌『크리스마스 이브』를 위한 12월 24일 밤에만 한해서 해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이날 특히 크리스마스 선물로서 음주 방탕은 물론이요 거기에 덮쳐서 략취와 강간의 자유까지 허용 받고 있는 미군들에게 있어선 더 없이 흥겨운 명절로 된다。그러나 한편 남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선 이 하루의 통행의『자유』로 하여 당하는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그것은 이날—12월 24일 밤에 남조선 인민들은『하느님의 축복』보다도 가장 험악한『악마들의 소동』을 겪는 재난의 날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 남조선 인민들이 12월 24일의 허울 좋은 통행 금지 해제는 곧『인민들을 미군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공하는 날』이라고 분개할 수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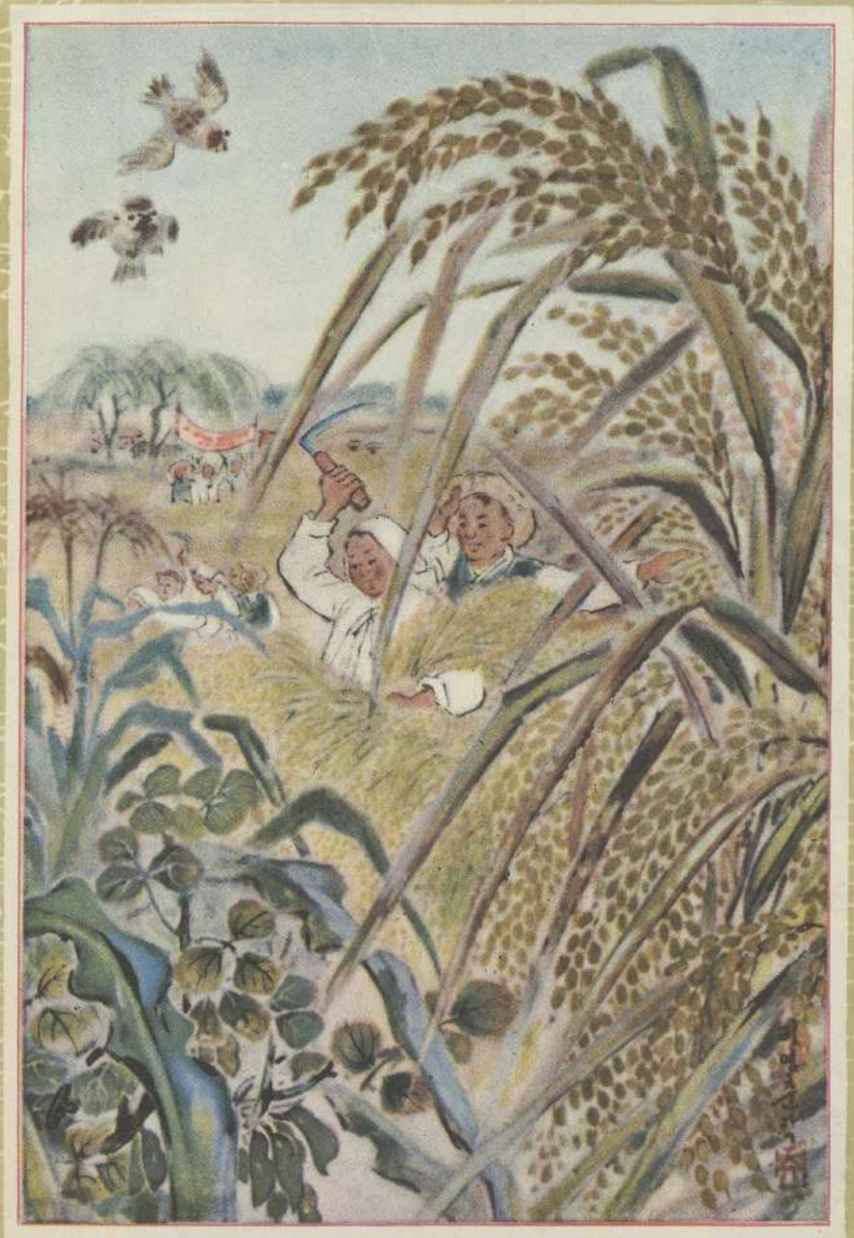
—최근의 남조선 소식에서—

승 화

리영춘 그림

이강산에 새봄오고 우리전망 활작폈네
모두함께 일떠나서 농기계랑 비료옷감
초과생산 달성하여 농촌에다 보내주면
농민들도 기뻐하여 알곡증산 더하렸다

농로넓혀 관개수리 해만놓면 옥토되지
모두함께 떨쳐나서 춘경전에 말끔하세
우리도와 로동자도 기계몰아 힘써주네
농민들도 합심하여 협동살림 더빛내세



선진영농 도입하고 협동로력 더욱잘해
무연벌에 오곡넘실 백과익는 가을보세
낟알데미 높다랗니 분배기쁨 모두안고
수령님께 올린맹세 증산으로 보답하세

적지적작 공들여서 공예작물 소출많이
공장에다 보내주면 옷감되고 식료되네
인민경제 3년계획 농촌서도 완성하면
민주기지 부강하고 우리행복 커만가네

"농촌 수탈" 독려대를 『장관』들로 편성

종곡까지 긁어 모았으나 요것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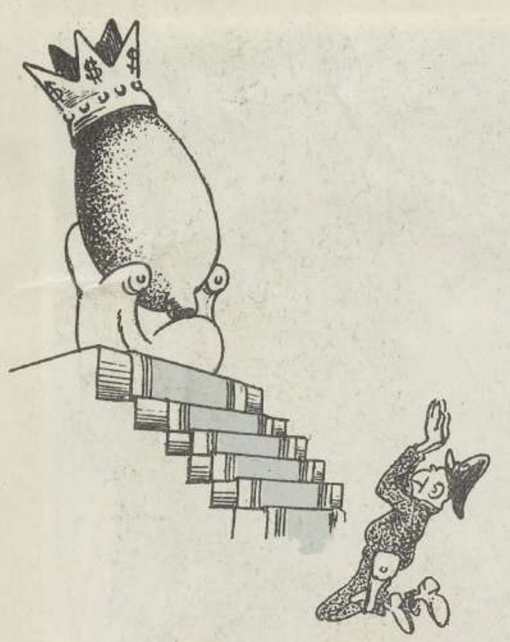
가렴 잡세 독촉에 폭력을

농축들은 모주리 "손님" 접대로

논밭은 군사 기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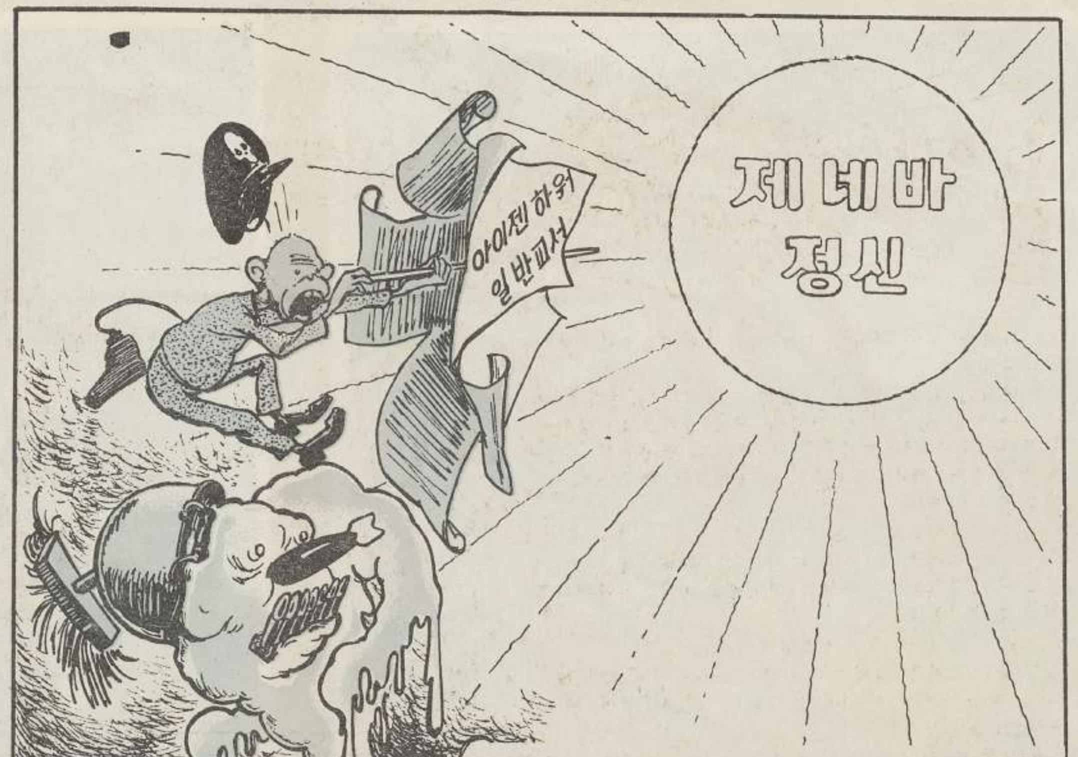
안창수 그림

인민의 원성은 절정에 달했다



미국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굴복〃이라고 일부 미국 국회 의원들까지도 아이젠하워의 교서를 비방하고 있는 형편이다

1956년의 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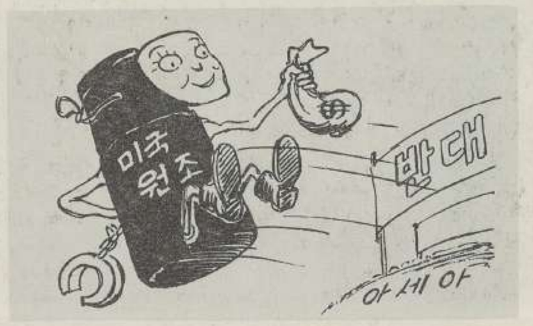
아이젠하워의 소위 이번『교서』는 미국 지배층이 여전히 파산된 『힘의 립장에 선 정책』과『랭전』의 소생에 대한 발광적 환상에 사로 잡혀 있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장진광 그림

미제가 받은 신년 인사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에 대하여 란포한 내정 간섭을 기도했기 때문에…

인도 인민들은 미제의 흉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세아 제 국가 인민들은 가면을 쓴 식민주의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아이크—덜레스의 망신

전 동 래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에 새 해의 행운을 비는 것이 습관이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아이크(미국에서는 소위 애칭이라 하여 아이젠하워를 일명 이렇게도 부른다)와 덜레스는 금년 새 해에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주의가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하는 엄청난 기도를 올렸다。

미국 선교사들의 말에 의한다면 주로 하느님의 전능한 힘이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를 천당에 보내는가 지옥에 보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였는 데 아이크와 덜레스는 또 무슨 다른 예수의 교리를 믿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의 죽은 후에 천당 살이에 관한 예약 운동보다도 저 멀리 바다 건너의 구라파 대륙에 인민들 자신의 뜻에 의하여 생겨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되로 뒤엎게 하여 달라는 왕청 같은 기도를 올려 왔으니 하느님도(존재한다면) 자기의 『전능』 밖에 속하는 이런 난사를 듣고 오는 이 무모하게 배 큰 신자들의 기도 소리에는 얼굴을 찌프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상상되는 것이다。

그래 새 해를 맞으며 아이크—덜레스는 무슨 행운을 받았는가?

행운은커녕 지난 해가 저물어 갈 무렵 그들은 모쓰크바에 있는 미국 아이·엔·에쓰 통신 지사로부터 또 하나의 불길한 소식을 받았다。

동 통신에 의하면 쏘련 최고 쏘베트 회의에서 느·쓰·흐루쑈브동지는 연설하면서 『인도 해안에 있는 포도아의 식민지 고아에 대한 미국과 포도아의 성명을 비판 하였는바 만장 대표들은 덜레스의 황당한 성명에 대하여 웃음을 터뜨렸다』는 것이였다。

아이·엔·에쓰 통신이 념두에 두고 있는 구절을 느·쓰·흐루쑈브 동지의 연설 원문에서 인용한다면 다음과 같다。

『덜레스가 말한 것 즉 그가 인도 령토 고아는 포도아 강점자들이 4백년 전에 그것을 강점하였다는 단지 그러한 리유로 포도아에 속하여야 한다고 로골적으로 말하는 데까지에 이르는 사실만을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하여 인도 출판물들은 덜레스씨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50년 전에 지금의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만일 그의 론리를 따른다면 덜레스 그는 자기를 오늘날 영국 녀왕 폐하에 충실한 사람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당히 상기시켰다(장내에 웃음 박수)』

또 다른 미국 통신들은 느·쓰·흐루쑈브 동지가 인민 민주주의 국가의 내정 간섭을 시도한 아이크—덜레스의 크리스마스 기도에 대하여 이는 『사람들의 정신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돈 주머니에 대하여 관심이 돌려지고 있는 증좌라고 말함으로써 장내의 웃음과 박수를 터뜨렸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비단 쏘련 최고 쏘베트의 대의원들 뿐만 아니라 느·쓰·흐루쑈브 동지의 연설을 주의 깊게 들은 세계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웃음— 즉 아이크—덜레스의 경솔한 망상에 대한 비웃음이였다。

말하자면 아이크—덜레스는 또 한번 톡톡히 망신을 당한 것이다。

망신을 당한 아이크—덜레스가 얼굴을 붉혔는지 또는 그의 본색대로 여전히 백색으로 남아 있었는지 하는 데 대하여는 미국의 통신들도 그후 아무 말이 없다。

망신을 당하면 누구나 점적한 법인데 우리 속담에는 『점적 김에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도 있다。

미국의 관변 당국은 바로 지금 이런 격의 행동을 또한 하고 있음을 뵈여 준다。 그들은 아이크—덜레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한 쏘련 지도자들의 정당한 비판이 『제네바의 정신』에 위반된다는 듯이 떠들며 하고 있다。

물론 『제네바의 정신』은 좋다。 그러나 『제네바의 정신』이란 이미 범한 아름답지 못한 행동—례하면 식민주의와 같은—들로 하여 얼굴에 감탕칠을 한 자들의 가면 노릇하기 위한 어떤 물건은 아닌 것이다。 만일 그들이 진정 『제네바의 정신』에 충실하려 하였다면 아무 망신도 당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문제는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죄행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둘째로는 이미 죄행을 범한 이상에는 누가 그를 론죄한다고 하여서 결코 노여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관적 감정은 과오를 초래할 수도 있는 법인즉 인간은 리성으로써 현실에 대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아이크—덜레스가 식민주의가 무너져 가는 데 대하여 그 누가 식민주의의 죄행을 규탄한 데 대하여 인민 민주의의가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슬퍼한 나머지 그의 신경질적으로 반발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그리워하는 하느님의 품 속으로 간 후에라도 망신은 항상 그들을 뒤따라 다니기에만 마련인 것이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어쨌든 나는 에밀 길렐쓰의 음악을 들으면 정말 황홀해지네

—여보게 친구 그점에 엄중한 위험성이 있다네! 나는 음악회가 끝난 후에 현관에 서서 물어보고 싶었네 ″고귀한 북대서양 동맹 원칙의 명의로 당신들의 손바닥을 봅시다 누가 박수를 하였습니까? 누구에게 하였습니까?〃라고

—그게 진정으로 하는 말인가?

—암 진정이구 말구 좀 따져보세 음악회를 보면서 사실 자네가 쏘련의 위협에 대해선 전혀 잊어버리지 않았단 말인가?

—응 정말 나는 잊어버렸었네…

—그것 보게! 상업가이며 존경 받는 자네로 하여금 그 음악은 개성의 우월성에 대하여 전혀 잊어버리게 하지 않았는가?

—그럴 수도 있네

—오리베르 크로믈리씨 —젝손은 엄숙히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상 더 나의 친구가 아니요

두 사람은 유쾌히 웃었다

—그런데 —크로믈리도 신중해 졌다— 자네의 그 롱담 뒤에는 누구인가 서 있는 것 같네 우리 신문에서 그런 롱담을 암시 받지 않았나?

—잡지네 크로믈리! 워싱톤 잡지 ″유나이테트 스테이쯔 뉴—쓰 앤드 월드 레포트〃이네 자넨 ″예술과 오락은 『랭전』에 있어서의 미국의 마지막 무기이다〃라는 론설을 읽지 못했나?

크로믈리는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면 들어 보게 ″미국의 문화—음악 연극 각종 예술들은 지금 각처에서 상연되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새로운 전략이며 바야흐로 그것은 커다란 성과를 가져 오고 있다

—한 옥타브 안에는 7개의 음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는 8번째의 음이 명확히 들리네

—그러나 그건 음악적인 음이 아니지 다음을 들어 보게 ″오래전부터 문화를 수출하고 있는 로씨야는 외국에서 미국 배우들이 환영 받는다는 것을 리해하고 있다〃

—나는 로씨야 사람들은 그러한 경쟁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네 그리고 그 경쟁이 불건전한 정열을 불러 일으킨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네

—자넨 참 순박도 하네 크로믈리! ″유나이테트 스테이쯔 뉴—쓰〃의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것은 경쟁일 수 조차 없고 진짜 전쟁이란거네 쏘련과 미국 예술 활동가들의 출연들에 대해서 잡지는 어떤 오케스트라의 라팔수가 다른 라팔 소리를 마비시키려고 애쓸 때의 그런 낡은 ″경쟁〃에 비유하였네 그들은 ″문화 전선에 있어서의 전 세계적 투쟁〃에 대하여서와 이 투쟁이 ″불 붙고 있다〃 는 점에 대해서 쓰고 있으며 기타 이러한 정신에서 쓰고 있네 일반적으로 이 신사들의 견해에 의하면 예술은 ″랭전〃 의 무기인 것이라네

—그 우에 작용 범위로 보아서도 열핵 작용과 같지

—웃지 말게 크로믈리 ″유나이테트 스테이쯔 뉴—쓰〃는 외국으로 파견된 바이오린니스트들은 로케트식 폭격기에 해당하며 무용단은 기계화 부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열심히 자기 독자들에게 침투시키려고 하네 하여튼 간에 유—피 통신은 이미 길렐쓰를 ″미국에다 쏘련 문화를 침입시키는 전초병〃으로서 규정하였다네

—젝손 내가 어디선가 ″뱀은 참대 구멍으로 몰아 넣어도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중국의 좋은 속담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나? ″유나이테트 스테이쯔 뉴—쓰〃의 편집원들은 바로 이 뱀을 련상케 하네 꿈틀거리며 쉬쉬 소리를 내는…

그런데 다음 쏘련 음악회를 보며 갈까 어떨까?

—우리들을 북대서양 동맹 반대자로 주목하지 않을까?

—모험을 해 봅세 자 그럼 어서 서둘러야겠네 사실 인즉은 표를 끊으려고 줄을 이어 길게 서 있다네

(한동신 번역)

″끄로꼬질〃 1955. № 32호에서

국제유모어 소개

КРОКОДИЛ—″끄로꼬질〃

쏘련 풍자 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1. № 34호에서 전재
브·이·브로로끄브 그림

미국의 자유

쏘련 풍자 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5. № 34호에서 전재
유·간파 그림

모두가 똑 같은 립장에서

서부 렬강의 몇몇 침략 활동가들은 이미 파탄된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아직 견지하고 있다

일부 일꾼들은 지난 해의 결함들을 퇴치할 대신에 아직도 남의 등에 업혀 다닐 수 있으리라고 망상하고 있다

—당신은 왜 아직도 출발점에서 떠나지 못하오?
—걸음 걸이가 비청거려서…

송용남 그림

남 잡이가 제 잡이

『지배인 동무 부기장을 잘 통제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그의 사업에서 빈틈이 생기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간부 지도원 장 두봉 동무의 이 말을 듣자 지배인은 놀라는 기색으로

『그렇소?! 어디 알아 봅시다』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지배인은 급히 부기장 김 현제를 자기 집으로 불렀다。

『간부 지도원에게 무슨 말을 듣지 못했소?』

『내 사업에 대해서 충고를 줍디다 눈치를 채고 있는것 같아요』

『일 없소 내가 적당히 처리할 테니 걱정마오 전에 직맹 위원장의 좋은 례가 있지 않소 여보 말이란 만들면 되는게 아니요』지배인은 이런 일에 능수가 된듯 자신 있게 말하였다。

전 직맹 위원장 양 제명 동무는 김 현제에 대한 여러 동무들의 정당한 의견을 지배인에게 반영하였더니 지배인은 "직맹 위원장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부기장을 내쫓자고 한다" 고 이모 저모로 허위 과장하여 양 동무를 평양 장유 공장에서 나가게 한 사실이 있었다。

지배인은 이 경험을 더 새로운 방법으로 살리기 위해 뜬 눈으로 그날 밤을 샜다。—그래 그래 기본 건설부에서 일하는 곽 경섭이가 딱 적당해— 마침내 지배인은 묘안을 생각해 냈다。그날 밤 지배인은 부기장과 함께 술 상을 채려놓고 곽 경섭을 맞았다。

곽 경섭은 무능하고 주견이 없으며 눈먼 말 원앙 소리 따라 가듯 남의 하는 일에 맹목적으로 따라 다니며 공연한 일에 부당하게 투덜거리는 친구다。

지배인은 여러가지 면으로 곽 경섭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자기를 칭찬하고 또 집에 불러다 술까지 대접해 주는 것이 이상하기는 하였으나 이러나 저러나 지배인이 주는 술과 칭찬으로 곽 경섭은 싱글벙글하였다。

곽 경섭이 한창 흥이 겨워할 때 지배인은 입을 뗐다。

『곽 동무 열심히 사업하는 일꾼을 모함해서 내쫓으려는 사람이 신성한 국가 기관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보 곽 동무! 간부 지도원은 동무에게 충고를 주는척 하지만 실지는 동무를 내쫓기 위하여 재료를 얻자고 하는 것이니 주의하시오』

부기장의 일이 들어 난다는 것은 곧 지배인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기장의 일에 눈치를 챈 간부 지도원을 내쫓아야만 되겠다고 생각한 지배인은 곽 경섭을 추동하여 간부 지도원과의 사이에 사단을 일으키게 꾸몄다。

그 후부터 곽 경섭은 간부 지도원을 만나면 외면했으며 하루는 술을 먹고 찾아가서 트집을 부렸다。그러나 간부 지도원은 곽 경섭의 어깨를 툭툭 치며 어서 들어가 자라고 부드러운 말로 타 일렀다。—이 친절도 나를 내쫓자는 방법이겠지— 간부 지도원의 친절한 태도에도 곽 경섭은 이렇게 생각했다。두번째 술이 취해서 간부 지도원을 찾아간 곽 경섭은 큰 소리를 지르며 주정을 부렸다。

한편 곽 경섭의 "놀음"을 노리고 있는 지배인은 "간부 지도원은 로동자들에게 큰소리를 지르기 일수이고 그들과 리탈되여 있으며 근거 없이 비판을 함으로 어떤 일꾼들은 자기가 맡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형편이고 더구나 곽 경섭과는 군중앞에서 언성을 높여 싸움을 한 일조차 있어서 그의 위신이 난처하게 되여 우리 공장에서는 사업하기 곤난하니 시급히 해당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는 긴 사연을 계속 상부에다 써 보냈다。

곽 경섭의 돌변한 행동을 신중히 살펴 온 간부 지도원은 반드시 여기에 그 어떤 곡절이 있음을 깨닫고 조용히 그와 만났다。

『곽 동무 내게 의견이 있으면 서슴 없이 말하시오 우리는 서로 믿고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결 같은 간부 지도원의 충고에 곽 경섭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더구나 간부 지도원이 자신의 결함을 찾으려는 태도와 충실히 사업하자는 말에 곽 경섭은 무엇을 생각한듯 고개를 숙이고 앉았더니 나가버렸다。

이튿날 직맹 총회에서는 로동자들이 광범히 호상 비판과 자기 비판에 참가했다。 곽 경섭이도 얼굴이 빨개져서 자기 비판을 했다。간부 지도원이 충고를 준 데 대하여 자기는 자기 결함들을 고칠 대신에 지배인과 부기장이 술자리를 리용하여 하던 말만 믿고 간부 지도원에게 루차 주정을 했으며 그를 비방하며 돌아 다녔다는 것을 솔직히 말했다。

부기장의 탐오 행위에 대해서만 얼마간 알고 있던 간부 지도원은 그것이 지배인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그래서 그는 자기 토론에서 부기장의 탐오 행위를 폭로하고 이 사실에 대해 지배인에게 반영한 바로 그 직후 곧 지배인은 부기장과 술자리를 같이 하고 곽 경섭을 불러 음모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로동자들도 지배인과 부기장의 죄상을 너도 나도 폭로하기 시작했다。

지배인과 부기장이 간상배와 결탁하여 된장을 팔아 넘긴 것이며 식료품 원료를 구입할 때 수십 만원의 현금을 횡취한 사실들이 폭로되였다。

드디여 그들은 자기들이 범한 죄행을 감추기 위해서 새로운 죄행으로 중상 음모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되고 말았다。

장 필 순

하늘 같이 믿었는데

—에그… 그림자를 밟겠군…

—저자가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헤헤

—아이구 이럴 줄이야…

백인균 그림

로동의 영예

최한진 그림

—당신과 함께 직장에 다니게 된 것이 여간만 기쁘지 않아요
—나 역시 기쁘오 꾸준히 노력하여 모범 로동자가 됩시다

—동무도 공장에 나오셨군요 우리 함께 배우며 노력하여 봅시다
—고맙습니다 나는 직장에 나와서 더욱 새롭게 영예감을 느껴요

—언제나 열성껏 기술 전습회를 통하여 서로 연구하면 됩니다
—배우는 기쁨과 일하는 기쁨은 나를 무한히 고무하여 주고 있어요

—동무의 발전은 대단해요 그게 다 동무의 애국적 열성의 표현이야요
—동무들의 방조와 함께 당과 국가의 배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축하합니다 로동으로 쟁취한 영예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나는 더욱 높은 로력적 성과로써 조선 로동당 제3차 전당 대회를 맞이하겠습니다

—저 웅장한 건설 성과들을 볼 때마다 행복감에 벅차군 해요
—거기에는 당신이나 나의 로력도 포함되여 있소 얼마나 자랑스럽소

랑비 현상의 이모저모

국가 식량이 아직도 랑비되는 일이 가끔 발생한다。 그 랑비되는 틈서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다。

△ 정실 관계에 사로 잡혀서

함북 유선군 계산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 김 동훈은 『사정』이 많고 많아 정실에 사로 잡혔다。 그래 영농하는 김 원우를 행방 불명자로 서류를 날조해 놓고 그의 동생 김 채봉을 무의 무탁한 자로 허위 인증해 줌으로써 국가 식량을 부정 배급케 했다고…

△ 두루 춘풍

누구에게나 다 좋도록 하며 덮어 놓고 글른 일에도 모가 없이 지내려는 자를 보고 『두루 춘풍』이라고 한다。

지각 조퇴를 해도 좋도록 꾀병을 해도 좋도록 무단 결근을 해도 좋도록 덮어 놓고 좋고 좋게 두루 춘풍 『병』에 걸린 부령 발전부 식량 취급자는 52일간이나 무단 결근한 조 길만에게 흘러가는 물 퍼주듯 국가 식량으로 『선심』을 쓰면서 두루 춘풍…

△ 생각 돌아가는 대로…

—나에게 손해가 없는 이상 괘히 남에게 아삭 바삭 박하게 할 필요가 없지…

김책 제철소 행정 경리부 몇몇 일군들은 모든 사업에 대하여 마음을 『넓게』 쓴다。

그래 그들은 열에 한가지라도 비슷하기만 하면 열에 아홉가지가 안된 것은 제쳐 놓고 비슷한 한가지만 들고 안된 것도 됐다고 한다。

『보이라 화부와 보이라 수리공은 약간 차가 있기는 하지만 화부나 수리공이나 첫 머리에 "보이라"라는 석자가 다같이 붙었는데 모두 화부로 취급하면 되지…』

그래 그들은 덮어 놓고 보이라 수리공 김 성훈 외 70명에 대하여 보이라 화부와 같이 적용시켰다。 그들이 마음을 『넓게』 쓰는 바람에 국가 식량이 807키로그람이나 초과 지출됐다。그래도 그들은 『나』에게 손해가 없으니 마음을 『넓게』 쓰자고…

△ 마름쇠도 삼킬 것

—국가 식량을 부정 배급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박춘 요업 공장 전 직맹 위원장 김 득천은 갑자기 목에 핏줄을 일켜 세운 일이 있었다。그래 그는 식량 취급자를 불러다 놓고 『훈시』도 하고 직접 식량 관계 서류를 들쳐 보기도 했다。

그런데 그후 어느날 로동자들은…

『웬 세상에 별일도 다 있지…』

『글세 김 득천이가 고모를 어머니라고 하고… 사촌 동생을 친 동생이라고 서류를 날조해서 국가 식량을 18가마니나 절취해 먹었다고 하니 참 마름쇠도 삼킬 것이지…』하고 말했다。

류 달

값 비싼 노루메기

함북 경성군 연분 농업 협동 조합 위원장과 부기원은 굉장히 비싼 노루메기를 먹는 걸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러면 대관절 얼마짜리 노루메기이기에… 우리는 그 값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사연을 들어 보자.

× × ×

이 협동 조합은 군 소재지에서 멀리 떠러져 있고 그남아 십리 고개라는 고개를 둘이나 넘어서 해변가를 낀 적은 부락에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군 지도 일군들이 자주 나올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조합은 많은 결함이 있어 새끼가 꼬이듯 꼬여만 갔다.

이 협동 조합에서는 계획이 없이 7개월 동안이나 사업하고 로력일 평가는 그날 그날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해 정확히 사정할 대신에 4—5개월씩 밀우다가 한꺼번에 해치우고 토지 보호 복구 사업은 현재 다루고 있는 기본 면적도 완전히 리용하지 못하는 형편…

그래서 조합원들은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할일이 없어서 그걸 물어보우?』

『계획이 없이 여기 덤벙 저기 덤벙 하다나니 소경 개천 건느는 것만 같아서…』

『퇴비 반출이며 부업 경리며 그 밖에도 바쁜 일들이 태산 같은데 괘니 그런 시비꺼리로 귀한 시간만 랑비하지 맙시다 이 바쁜 때—』

바빠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대답이다. 로력일 평가 문제를 제기해 온 적도 있었다.

『로력일 평가를 지금껏 하던대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불평도 생기고 조합원들이 작업에 흥미를 가지지 못해서…』

『아직은 그대로 합시다 지금 한창 바쁜 판에 어디 그런 문제를 재 검토할 짬이 있어야지 조금 기다리시오』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조합 총회 열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차츰 높아졌다. 그럴 때마다 관리 위원장 동무는 또다시 바빠진다.

『글세—총회를 열려고 해도 우선 재료를 추르고 보고며 결정서도 준비해야 되겠는데 지금 어디 그럴 짬이 있소?』

그리하여 조합 총회는 한다 한다 하며 의붓아비의 제삿날 밀우듯 하다가 6개월만에야 겨우 총회가 열렸다. 조합원들은 그동안 제기된 많은 문제들이 토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관리 위원장은 먼저 부기원에게 채소전을 몇평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내 놓았다. 이 안건의 토의가 끝나자 조합원들은 다음 안건을 기다렸다. 다음 안건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였다. 관리 위원장과 부기원은 이때도 역시 조합원들의 의견이 나오자 바빠서 총회 준비를 그 이상은 더 하지 못했다는 구실로 깔아 뭉개고 말았다.

그러면 관리 위원장과 부기원이 무얼로 또 어떻게 바쁜가를 보기로 하자. 그들이 바빠하는 모습은 조합원들의 제의나 비판은 들은척 만척 하며 낚싯대를 드리우고 바닷가에 앉아 있는 데서 볼 수 있었다. 미끼를 준비하려니 바쁘고 고기가 물면 채 올려야 하니 바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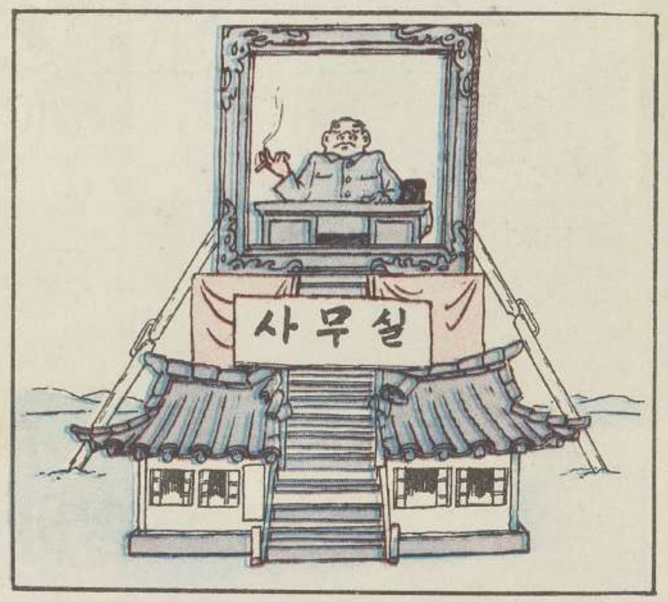
× × ×

연분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자기 생산 계획을 실천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이웃 협동 조합들과 비해 볼 때 조합원들의 수입도 박후한 형편에 있다. 그러니 조합 전체의 수확을 상당히 희생하면서 낚아린 노루메기가 얼마짜리나 되겠는지?

류 달

교조주의는 왜 나쁜가?

영농 준비를 지도함에 있어서 농민들의 준비 정도와 토질, 수리조건, 기후및 그 밖에 지방실정을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교조주의적으로 지도 함으로 영농사업의 보다 높은 성과를 보장 못하고있다.



원광수 그림

형식주의는 왜 나쁜가?

일부 일군들은 우리의 현실 조건들을 념두에 두지 않고 불필요한 허식과 뭍차림을 함으로써 사업 작풍상 인민 대중과 리탈하는 엄중한 형식주의를 범하고 있다

좁은 울타리 속에서

일부 일군들에게는 적재 적소의 원칙을 무시하고 친척 동향 동창 관계에 의해 간부를 선발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를 배치할까요!
—지금 적당한 사람을 고르고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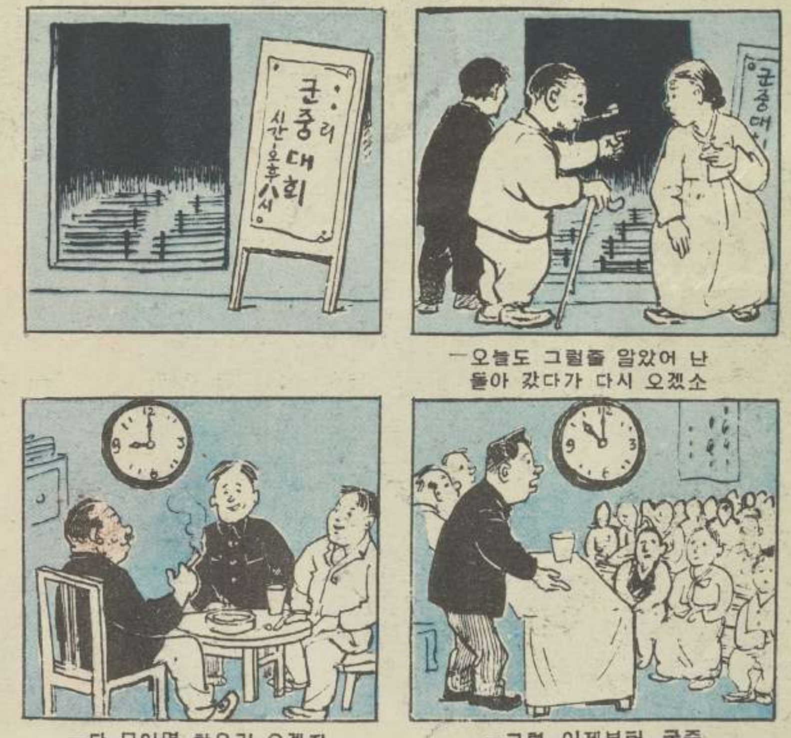
최영근 그림

재미나는 고을에 범이 난다

일부 수매 기관 일군들은 정실 관계나 개인 리해 관계에 사로 잡혀 국가적 립장을 망각하는 일들이 있다

함북 호곡 제재 공장 기공반 최 윤식 그림

또 하나의 랑비 현상



—오늘도 그럴줄 알았어 난 돌아 갔다가 다시 오겠소

—다 모이면 찾으러 오겠지

—그럼 이제부터 군중 대회를 가지겠습니다

강서 제3 중학교 교원 홍 경선 그림

독자 응모 작품

8·15 해방 10주년을 기념하는 본사의 현상 작품 모집에 독자 여러분이 열성적으로 응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입상자는 2월호에 발표하기로 된 데 대하여 널리 량해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 ×

투고 작품 중에서 현실적 교육적 의의가 깊은 작품을 선택하여 본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각양의 부정 현상들을 풍자 비판함으로써 신속히 그 결함들을 시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부에서

정연한 체계

사무원 송 동진 그림

영농 준비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민들은 영농 준비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들판에 쌓인 눈을 보고선 아직도 봄은 멀었다고 생각하는 데로부터 영농 준비가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들도 없지 않다.

△ 노루 보고야 그물 질머질 작정인가

영농용 우량 종자를 확보할 데 대하여 평북도 인민 위원회 농산부에서는 작년 8월에 도 내 각 군에다 두 차례의 지시문을 시달함으로서 자기 사업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

그래서 교현군에서는 지난 12월 현재 옥수수 종자는 계획의 2.3%를 확보한 데 불과하며 의주군 서호리에서는 11월까지 이 사업에 전혀 착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 군적으로 12월 현재 9.6%의 종곡을 확보하고 있는 형편이다. 설상 가상으로 그거나마 불량 종자를…

그들은 또한 종이장만으로 지도 사업을 대치하므로 하부 실정에 눈이 어둡고 가끔 락상 계획을 내리먹이는 사무실적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교현군의 락화생 총 생산량은 24톤인데 그 24톤 가운데서 55톤의 우량 종자를 선별해 내라는 지시를 시달하니 기막힐 일…

이러고 보니 봄에가서는 노루를 보고야 그물을 질머질 작정인가?

△ 그림의 떡

밭을 논으로 수리 불안전 답을 수리 안전 답으로 전환해서 알곡 생산을 급격히 제고시키기 위하여 오는 4월에 통수를 예견하고 지난 가을부터 대동군 내리에서는 영진 양수장 공사가 시작되였다.

일찌기 남녀 청년 로력자들이 이 공사에 동원되였으며 암석 굴착을 위한 콤푸렛샤도 배당되여 왔다.

그런데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였던 이 턴넬 공사는 이제야 겨우 10메터를 굴착하였다.

이 공사에서 가장 주요한 개소인 턴넬 160메터의 굴착 공사는 제쳐 놓고 일하기 쉬운 토공 공사를 선참 착수 했는가 하면 하루에 2메터 이상의 굴착 성능을 가진 콤푸렛샤는 그림에 떡인양 그냥 세워 놓고만 있다. "왜 기대를 사용하지 않는가"고 누가 물으면 "이 추운 날씨에 다루기만 귀치 않지 기계 한 대를 가지고서야 원—"하고 공사 지도원은 대답한다.

그가 추운 날씨에 기계를 다루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기계를 사용하였다면 이미 공사가 끝났으리라는 것은 모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도 4월에 통수를 못해도 새해의 다수확에 지장이 있어도 지금 당장 하는 일이 쉬우면 그만이라고 그림의 떡과 같이 기계를 세워 놓고 있으니 언제 가야 공사가 끝날지 한심한 노릇…

△ 룡두 사미

삼천 여 정보의 넓은 논 밭을 소유하고 있는 신계 국영 농장에는 그만큼 많은 로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 넓은 지역이며 많은 로력을 잘 타산한 나머지 이 농장에서는 니탄 채취며 락엽 수집과 분토 생산을 포함한 1만 3천 톤의 자급 비료를 생산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만 하면 우리의 영농 준비는 그럴듯 하지— 이곳 지도 일군들은 자기들이 작성한 계획 목표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도 계획표에 생산 실적을 기록하는 사람은 없다.

이곳 농장 지도 일군들은 각종 자급 비료의 원천을 개발 동원하기에 로력을 경주할 대신 사무실에 들어앉아서 "자급 비료 원천이 없네" "로력 동원이 잘 안될 것이네" 하고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계획을 작성할 때는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울 기세였건만 결국은 이런 저런 구실 뿐으로 일이 유야 무야로 되여 가고 있으니 바로 신계 국영 농장 지도 일군들이 하는 일은 "룡두 사미" 격이다.

순 필

편집 위원 장 진 광 (책임 주필) 박 무 백 광 호 서 만 일 신 불 출 리 갑 기 정 현 웅
발 행 소 활 살 (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소 국 립 종 합 인 쇄 소
인 쇄 1956. 1. 10. ㄱ—40021 발 행 1956. 1. 15. 값 (50원)

—아이구 슬퍼라! 내 팔 다리가 끊어진 것 같구나

장진광 그림